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합리성과 성경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합리성과 성경」, 509~538쪽. 원래는 칼빈 전통의 합리성을 다룬 학술 모임의 발표 논문이고, 『Rationality in the Calvinian Tradition』(1983), 293-317쪽에 실렸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추론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삶 전체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살핀다. 하나님은 성경과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고, 이 셋은 서로 기댄다. 그래도 성경은 세 가지 이유로 최종 판단권을 가진다. 성경의 주제는 구속이고, 성경에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성경은 언약 문서다. 다음으로 같은 원리를 이성에 적용한다. 추론은 순종의 일부라서 버릴 수 없다. 하지만 논리도 중립적이지 않고 한계가 많아서 성경과 겨루는 오류 없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논리를 쓰되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한다. 풀리지 않는 모순을 만나면 성경을 부정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라는 것이 결론이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 주최 측의 질문과 피할 수 없는 순환

이 글은 학술 모임 주최 측이 미리 보낸 도입 글(번역서는 '심층 논의'로 옮김)에 답하는 논문이다. 주최 측의 질문은 네 가지였다.

- 신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가?
- 추론의 원리는 성경 이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성경과 씨름하는 일에 명제와 지적 작업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기준이 된다는 '자율적 이성'의 전통적 견해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가?

프레임은 도입 글의 첫 두 문장, 곧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며 삶의 모든 영역의 최고 기준이다”를 논쟁거리가 아닌 전제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순서는 셋이다. 성경이 삶 전체를 다스리는 방식을 보고, 그 다스림이 이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그렇게 이해된 이성이 성경 해석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본다. 그는 이 세 부분이 서로를 전제한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이런 순환은 신학과 철학에서 흔하고, 그는 피할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서로 기대어 하나로 살아 있는 몸, 곧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1. 학술 모임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논문
2. '성경 = 최고 기준'은 증명 대상이 아닌 전제
3. 순서: 삶 전체 → 이성 → 성경 해석
4. 세 부분은 서로를 전제한다(순환)
5. 진리가 유기체라 순환은 피할 수 없다

> **(이 절에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 없음)**
> —

📜 2. 성경과 계시의 유기체 — 성경·세상·나

프레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계시의 전부는 아니라고 먼저 짚는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 주시는 일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만 가리키지 않는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가리킨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통해서도,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셋은 처음부터 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을 해석해야 했다. 그런데 거꾸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려면 언어와 땅과 자기 능력을 알아야 했다.

외운다) 성경을 내 삶과 세상에 연결하는 일이다. 신학도 성경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새 상황의 질문에 답하는 일이라서, 사람과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성경은 여러 계시 출처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그러면 성경 이해와 자연 이해가 부딪칠 때 아무 쪽이나 골라도 된다. 프레임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약속 대신 자기 눈을 따랐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래서 '성경만의 뚜렷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1. 하나님 말씀 = 성경 + 창조·섭리의 말씀 + 그리스도
2. 계시는 성경·세상·나, 셋이 서로 기댄다
3.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려면 세상 지식이 필요
4. 성경을 안다 = 성경을 삶·세상에 연결한다
5. 말로 주신 계시는 이제 성경에만 있다(각주)

> **시편 33:6; 창세기 1:3, 6, 9; 요한복음 1:1-3; 베드로후서 3:5**
> 세상을 지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
>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 **창세기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 **창세기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 **창세기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 **요한복음 1:1-3**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 **베드로후서 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시편 119:89-92; 147:15-18; 148:8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 있다

시편 119:89-92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47:15-18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148:8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요한복음 1:1-14; 요한일서 1:1; 요한계시록 19:13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1-14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

요한일서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계시록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시편 19:1; 로마서 1:18

시편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기 1:26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계시의 자리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28-30; 2:16, 19

아담에게 주신 말씀. 이해·순종에 세상 지식이 필요

창세기 1:28-30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마태복음 22:29-32; 요한복음 5:39; 누가복음 24:25

성경을 외워도 구속 사건과 연결 못 하면 모르는 것

마태복음 22:29-32 [29]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로마서 4:18-21

성경이 동등한 출처일 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설명 안 됨

[18]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3. 성경의 뚜렷한 역할 ① 주제 — 구속에 초점, 그러나 범위를 가두지 않는다 ^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 잡다한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필요에 맞춘 책이다. 그래서 전문 학술 문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쓰였다. 이 점은 새롭지도 않고 논란거리도 아니다. 논란은 여기서 끌어낸 결론에서 생긴다.

잭 로저스는 "성경은 우주에 대해 한 말이 많다"는 바틴의 말을 "성경의 초점이

답하지 않는다고 하고, 도예베르트는 성경이 창조의 날들의 시간 순서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도예베르트는 '우주법 이념 철학'이라는 네덜란드 기독교 철학 학파를 세운 사람으로, 이 학파는 실재를 여러 '양상'으로 나눠 본다. 프레임은 이들 모두 '초점'에서 '범위 제한'으로 건너뛰는 논리 비약을 한다고 본다.

프레임은 두 가지를 근거로 든다. 첫째, 복음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소식이다. 둘째, 창조·타락·구속은 온 우주에 걸친 일이고, 복음은 과학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나가며 하신 말씀까지 받아야 한다. '핵심 취지'만 존중하겠다는 태도는 불경하다.

그렇다고 에스겔서에서 비행기를, 잠언에서 $E=mc^2$를 찾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신자는 성경에서 우주에 대한 종교적 전제를 얻고, 과학 이론을 그 전제와 맞춰야 한다. 창조·기적·부활에 관한 성경의 주장이 일부 과학자의 주장과 부딪쳐도 프레임은 놀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과 인류 조상에 관한 통상의 과학적 견해가 부딪치는 문제를 미리 풀어 줄 원리는 없다. 해당 구절을 하나하나 연구해야 한다. 이 초점은 성경이 다룰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이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한다. 구원의 메시지는 자연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이 성경 이해를 바로잡기도 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프레임은 이 질문을 남겨 두고 다음 두 역할로 넘어간다.

1.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2. 초점은 다룰 주제의 범위를 가두지 않는다
3. 구속은 세상 안, 시공간에서 일어났다
4. 지나가며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5. 구체적 충돌은 구절별 연구로 판단한다

> **디모데후서 3:16**
>
> 개별 구절의 초점은 성경 전체의 목적과 맞아야 한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창세기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로마서 8:18-22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골로새서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14:23; 고린도전서 10:31; 골로새서 3:17, 23

복음은 과학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로마서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린도전서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 4. 성경의 뚜렷한 역할 ② 구원하는 능력 —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성령이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말씀과 떨어져 따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결정을 바꿀 힘을 얻으려고 거듭 성경으로 돌아간다.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는 표현은 생생하지만, 말씀의 의미와 상관없이 덮치는 맹목적 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붙들린다는 것은 진리를 확신하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도예베르트 같은 이들은 이 앎이 이론을 넘어서는 '마음의 지식'이라고 강조한다. 프레임은 이 말에 맞는 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말씀은 학자만큼 보통 사람에게, 어른만큼 아이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균형이 필요하다. 첫째, 성경 전체가 복음이므로 성령의 능력은 성경 전체에 미치고, 성경이 담은 모든 함의와 적용에도 미친다. 신학 작업도 그 안에 들어간다. 둘째, 모든 신자가 같은 깨달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로마서 6장이 성화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신학자는 확신해도, 그의 열 살 아들은 질문조차 모를 수 있다. 결국 이 구원의 능력은 성경이 다른 계시에 기대면서도 어떻게 우위를 가지는지 보여 준다. 일반계시의 도움을 받아 바르게 이해한 성경만이 다른 어떤 것도 못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거짓을 걷어 낸다.

1. 성경에는 정보와 함께 변화의 힘이 있다
2.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따로 일하지 않으신다
3. '붙들림'은 맹목적 힘이 아니라 확신과 순종
4. 성령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 미친다
5. 깨달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 **로마서 1:16**
>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요한복음 6:63**
>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디모데후서 3:15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말씀은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온다

>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3:16; 마태복음 4:4

성경 전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대상이다

>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5. 성경의 뚜렷한 역할 ③ 언약의 지위 — 언약 문서이기에 최종 판단권을 가진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법전이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에서는 큰 왕(종주)이 작은 왕(봉신)과 맺은 조약을 문서로 남겼다. 이 문서는 종주가 1인칭으로 써서 봉신 앞에 법으로 세웠다. 메리데스 클라인은 성경이 이 장르의 영향을 받은 '언약 문서'라고 주장했고, 프레임은 이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이 문서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언약을 깨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언약 소송'을 낼 때 판단 잣대도 이 문서였다. 그래서 이 문서는 언약궤 안에

클라인의 세부 주장을 어떻게 보든, 이 모델은 개혁신학이 늘 강조해 온 성경의 신적 기원과 최고 기준이라는 지위를 잘 보여 준다. 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언약 문서도 아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성경과 일반계시의 관계를 셋으로 정리한다. 일반계시는 자연과 인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다.

- 계시 자체는 둘 다 참되고 권위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고치지 않는다.
-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서로를 바로잡는다. 성경이 자연 해석을 고치기도 하고, 그 반대도 있다.
- 결정적 불균형이 있다. 해석상 이견이 없을 만큼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출처에서 온 판단보다 앞선다. 일반계시가 그 반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다.

세 번째는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을 정리한 원칙이다. 나이와 사라의 몸 상태라는 자연의 정보는 약속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 세 번째 원칙이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의견도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충족성 교리는 성경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신적 규범을 다 담고 있다는 뜻이다. 충족성은 성경이 하나님 뜻을 알기에 모자람 없다는 가르침이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의 모든 의무는 성경의 적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가를 수 없다. 다만 적용에는 성경 밖 지식도 들어간다.

1. 성경은 하나님이 1인칭으로 쓰신 언약 문서
2. 자연은 말씀도, 언약 문서도 아니다
3. 해석은 서로 바로잡지만 확정된 성경이 앞선다
4. 이 우위가 없으면 믿음과 보는 것이 구분 안 됨
5. 충족성 = 모든 진리 X, 모든 신적 규범 O

> **출애굽기 31:18; 24:12**
>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언약 문서의 저자는 하나님

출애굽기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로마서 4:18-21

확정된 약속이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앞선다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마태복음 15:9; 골로새서 2:22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구분해야 한다

마태복음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골로새서 2: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 6. 성경과 성화

앞에서 성경은 순종할 힘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반대 방향도 참이다. 성경이 성화에 필요할 뿐 아니라, 성화도 성경을 바르게 쓰는 데 필요하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상황에 연결하는 지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빛의 자녀로 살고, 지식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한다. 히브리서 5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직 같은 깊은 진리가 연단을 통해 성앙을 분별하게 된 성숙한 사람에게 열린다고 말한다.

여기에도 순환이 있다. 더 순종하려고 성경으로 가고, 더 순종할수록 성경을 더 잘 안다. 이 순환에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중생, 곧 성령이 죄인을 새 생명으로 다시 낳으시는 은혜로 들어간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이것이 '마음의 지식'이 이론을 넘어선다는 주장의 좋은 근거라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성경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순종에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1. 성경이 성화를 낳고, 성화가 성경 이해를 돕는다
2. 성경 적용에는 도덕적·영적 성숙도 필요
3. 깊은 진리는 성숙한 사람에게 열린다
4. 이 순환에는 중생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 **로마서 12:1-2**
> 몸을 드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
>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에베소서 5:8**
>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 분별의 조건이다
>
>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빌립보서 1:9**
> 지식과 총명 안에서 넘치는 사랑
>
>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 **히브리서 5:11-14**
> 깊은 진리는 연단받은 성숙한 사람에게 열린다
>
>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 7. 성경 교육의 풍성함 — 성경은 한 가지 말투로 말하지 않는다

신학자나 보통 신자나 성경을 한 종류의 언어로만 읽는 버릇이 있다. 교리 사실의 모음으로 읽거나, 윤리 명령의 모음으로 읽는다. 신학을 학문적 이론 훈련으로만 보는 경향도 이 버릇을 키웠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신학을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을 적용하는 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말한다. 문장 형식에는 서술과 명령뿐 아니라 질문과 감탄도 있다. 하나님은 정보를 알려 주실 뿐 아니라 소크라테스처럼 날카롭게 물으시고, 안일한 우리를 깨우려 크게 외치신다. 언어학자 오스틴의 '말로 하는 행위' 이론으로 보면 성경의 말은 여러 일을 한다. 주장, 명령, 질문, 약속, 칭찬, 저주, 애통, 고백, 위로, 유죄 선고 같은 일이다. 장르도 역사 이야기, 율법, 예언, 시, 잠언, 서신, 묵시로 다양하다.

'명제계시'라는 말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계시를 말없는 신비 체험으로 보는 요즘 흐름에 맞서, 성경에 명제적 내용이 있다고 강조하는 일은 중요하다. 성경 전체가 정보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모두 명제적이다. 동시에 성경 전체는 명령하고, 묻고, 깨우는 기능도 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자, 구속받은 죄인의 응답이자, 율법이자 예언이자 지혜다.

그래서 프레임은 복음주의가 이 다양성을 담는 권위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의 권위를 받는다는 것이 명제 목록을 믿는 것과 같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시편이 권위 있다는 것은 거기서 뽑아낸 명제를 믿는다는 뜻만이 아니다. 시편이 우리 마음의 노래가 되어 영적 삶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각주에서는 종주권 조약 구조가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설명해 준다고 본다. 그리고 문맥을 무시하고 문장을 떼어 읽는 '합리주의적 명제주의'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2. 약속, 애통, 위로, 저주도 성경이 하는 일
3. 성경 전체가 명제적이지만 그 이상이다
4. 권위 = 명제 목록 믿기, 그것만은 아니다
5. 시편의 권위는 마음의 노래가 되는 것

창세기 3:9

"네가 어디 있느냐" — 질문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1:15

예수님의 질문이 사람을 다룬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로마서 6:1, 15; 7:1, 7, 13

바울도 질문으로 논증을 끌고 간다

로마서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2

감탄(“그럴 수 없느니라”)도 성경의 가르침 방식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모든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명제적이지만, 성경은 명제적인 특성 그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

📜 8. 이성이란 무엇이며, 성경은 이성을 다루는가

이 절부터 2부다. 프레임은 이성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추론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추론은 그런 판단과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추론은 삶의 한 부분이고, 앞의 내용을 이성에 적용하는 일만 남는다. 영어 성경에 이런 뜻의 '이성'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이 주제를 다룬다.
이유는 넷이다.

-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성은 삶의 일부다.
- 성경은 지혜, 가르침, 분별처럼 추론이 들어간 자질과 활동을 전제하고 많이 말한다.
- 성경은 순종, 말씀 이해, 사랑처럼 판단이 필요한 행동을 명령한다.
- 성경 자체가 받아들여야 할 판단과 결론을 담고 있고, 그것을 받는 일도 이성의 행위다.

그렇다고 성경의 초점이 추론이거나 '합리성'이 성경의 핵심 특징이라는 말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관심이 있듯 추론에도 관심이 있을 뿐이다.

없다고도 한다. 또 우주법 이념 철학 쪽 사람들이 '성경은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자기 학파의 전문 용어로 오해한다고 꼬집는다.

1. 이성 = 판단·결론·추론하는 능력
2. 성경에 단어는 없어도 주제는 다룬다
3. 성경을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이성의 행위
4. 그렇다고 성경의 초점이 추론은 아니다

> **(이 절은 앞 절들의 논의를 근거로 삼고 구절을 따로 들지 않음)**
> —

📜 9. 추론의 지위 ① 중요성 — 추론은 순종의 일부

추론은 강의실에만 있지 않고 삶 전체에 퍼져 있다. 프레임은 두 가지 예를 든다. 군인 남편을 둔 아내는 엄숙한 표정의 장교가 문 앞에 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나쁜 소식이라고 결론 내린다. 미식축구 쿼터백은 수비진의 움직임을 읽고 본능처럼 피한다. 둘 다 삼단논법(두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형식 논증)을 따질 틈은 없지만 분명한 추론이다. 논리학과 인식론(앎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따지는 철학)은 좋은 추론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보여 줄 뿐이다.

성경에 반응하는 일에도 늘 추론이 들어간다. 성경은 “존슨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 형제 존슨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 의무는 추론으로 얻은 결론이다. 그러니 성경은 합리적 반응을, 그것도 좋은 추론을 요구한다. 다른 선택지는 성경이 어떤 자발적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성의 위험을 이유로 하나님의 일에 이성을 쓰는 것을 불경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프레임은 성경에서 추론하는 일을 부정하면 순종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답한다. 순종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비합리주의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하고 마귀적이라고까지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이 명시된 말씀뿐 아니라 “정당하고 필연적인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성경은 우리가 쓰는 논리 체계를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 각주에서는 반틸이 한쪽에서는 합리주의자로, 다른 쪽에서는 이성을 반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지적한다. 합리주의와 신앙주의를 둘 다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주의는 이성을 배제하고 믿음만 앞세우는 입장이다.

1. 추론은 일상 어디에나 있다(아내, 쿼터백)
2. 말씀 적용은 곧 추론이다(존슨을 사랑하기)
3. 성경은 좋은 추론을 요구한다
4. 추론을 부정하면 순종을 부정하게 된다
5. 신앙고백서 1.6: 필연적 결론도 하나님 뜻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대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을 근거로 듦)**
> 성경에서 정당하게 끌어낸 결론도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

📜 10. 추론의 지위 ② 한계 — 논리도 중립적이지 않다

추론은 하나님 앞에서 지는 책임의 일부라서 결코 '중립'이 아니다. 우리를 경건하게도 불경건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논리학, 수학, 인식론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하도록 돕는 일종의 '윤리적' 학문이다. 그 결론뿐 아니라 전제와 출발점도 결국 종교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논리 법칙이 중립적이고 오류 없는 토대라는 생각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프레임은 논리의 한계 아홉 가지를 짚는다.

1. 비모순율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실천적(윤리적)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비모순율은 같은 것이 같은 때, 같은 의미에서 참이면서 거짓일 수 없다는 법칙이다.

2. 논리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전제한다. 그런데 이 합의 자체가 종교적으로도 논쟁적이다. 합의가 없으면 논리 합의는 껍데기뿐이다.

3. 수학과 논리학 자체도 논쟁으로 가득하다.

전제한다.

5. 우리는 모든 논리 법칙을 알지 못한다. 우리 논리 체계는 일상의 많은 추론을 설명하지 못한다.

6. 믿음에 반대되는 사실이나 겉보기 모순이 곧바로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체계 안에서 풀 문제로 다룬다. 몇 개의 모순이 쌓여야 믿음을 버리는지는 정할 수 없고, 실제적·개인적·종교적 요인에 달려 있다.

7. 결론은 전제가 참일 때만 참이다. 엄밀함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고, 전제를 아는 우리는 틀릴 수 있다.

8. 비모순율에는 '같은 때, 같은 의미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측면에만 적용된다.

9. 논증을 검토하려면 일상 언어를 논리 기호로 옮겨야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이 생긴다. 일상 말의 '만약 ~라면'과 논리학의 '만약 ~라면'은 같지 않다.

결론은 이렇다. 인간 추론에서는, 심지어 논리에서도 언약의 최종 규범인 성경과 겨룰 오류 없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이 삶 전체를 다스리듯 추론도 다스린다.

1. 추론은 하나님 앞의 책임이라 중립이 아니다
2. 논리학도 '무엇을 믿을까'를 정하는 윤리적 학문
3. 논리는 참·거짓에 대한 종교적 합의를 전제
4. 엄밀한 논리도 거짓 전제면 거짓 결론
5. 논리는 성경과 겨루는 무오 기준이 아니다

> **(이 절에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 없음 — 철학·논리학 문헌으로 논증)**
>
> —

📜 11. 추론의 실천 ① 계시의 유기체 — 세 관점

성경은 삶 전체를 다스리는 방식 그대로 추론을 다스린다. 성경의 언약적 으의

경험은 이 셋으로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주신 법칙이 되고, 알 수 있는 대상이 되며, 내 내면의 경험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규범적·상황적·실존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한두 관점에서만 작동하는 경험은 없다.

인식론자들은 확신의 근거를 셋 중 하나에서 찾아 왔다. 추론 규칙을 바르게 적용한 것, 실재와 맞는 것,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다. 각각이 가장 근본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있다. 하지만 성경과 칼빈이 가르치듯 하나님이 법칙과 피조물과 자아를 서로 기대도록 세우셨다면, 셋 사이에 서열을 매길 필요가 없다. 다른 둘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디서 시작해도 된다. 각주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세속 철학의 딜레마를 피한다. 모든 실재가 자아로 빨려 들거나, 객관성을 찾다 자아를 잃는 딜레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성경은 작은 한 '항목'이다. 규범 가운데 일부이고, 피조물 가운데 일부이며, 경험 가운데 일부다. 그러나 각 관점 안에서 성경은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 추론은 하나님 법 아래 있고, 죄와 유한함 때문에 틀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 계획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생물학 교과서가 아니듯 논리 교과서도 아니다. 하지만 논리에 대해 하는 말은 존중해야 한다.

1. 성경·세상·나 ≈ 법칙·대상·주체
2. 모든 경험은 세 관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3. 확신의 근거 셋(규칙·대응·만족)에 서열 없음
4. 어디서 시작하든 다른 둘을 놓치지 말 것
5. 각 관점 안에서 성경은 결정적 부분

> **(이 절에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 없음)**
> —

📜 12. 추론의 실천 ② 성화와 성경 가르침의 부요함

실존적 관점, 곧 주체 쪽 관점은 단순한 사실을 일깨운다. 볼 눈이 없으면 보지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이면서 '모르는' 자로 부른다. 그들의 하나님 지식은 모순되고 역설적인 지식이다. 이것은 일반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일반은총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푸셔서 죄의 영향을 억제하시는 은혜다.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늘 최고의 사고가인가? 그렇지 않다. 지능, 자료 활용, 교육과 훈련, 경험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화는 삶의 영역마다 고르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신실하지 않아도 가난한 이를 돕는 일에서 거룩함을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성화는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해 보는 눈을 열어 주므로 앎에 분명한 이점이 된다.

성경은 추론의 중요성과 한계와 실천을 적어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경건한 추론의 본보기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논증과 명제에서 결론을 끌어내기를 원하신다. 그뿐 아니라 시와 비유와 이야기에도 합리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해석에서 중요하다. 구약 이야기가 사건 정보만 주려고 쓰였다면 갈라디아서 4장의 하갈과 사라 비유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신약 진리의 예로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논리 기술뿐 아니라 상상력, 본문에 대한 정서적 공감, 순종하려는 의지까지 모든 능력이 필요하다. 각주에서는 감정과 지성이 서로 기댄다고 말한다.

1. 볼 눈이 있어야 본다: 중생과 성화가 필요
2. 불신자의 하나님 지식은 역설적 지식
3. 가장 거룩한 사람이 최고 사고가는 아니다
4. 하나님은 시·비유·이야기에도 반응을 원하신다
5. 이해엔 논리·상상력·감정·의지가 다 필요

> **로마서 1:21**
> 불신자도 하나님을 '안다'
>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데살로니가후서 1:8**
>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갈라디아서 4:21-31

구약 이야기를 신약 진리의 예로 읽는 성경 자신의 방식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

📜 13. 성경에 대한 추론 — 해석에 주는 결론

마지막 절은 성경을 해석할 때 추론이 맡는 역할을 정리한다. 성경에서 추론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쓰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 순종에는 늘 성경 말씀과 지금 내 결정 사이의 합리적 연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이성은 한계가 있고 틀릴 수 있다. 성경에 추론을 적용할 때 그 한계가 특히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불가해하시기 때문이다. 불가해성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는 있어도 다 알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신학자들도 '겉보기 모순' 없이 하나님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그래서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다. 무엇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현재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추론할 때는 논리의 한계에 특히 민감해야 하고, 성경 자체의 '비형식 논리'에 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추론이 뚜렷한 모순으로 이어지거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각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예로 든다. 성경 저자들은 이 둘을 조화시켜 설명하지 않고도 상황에 맞게 주권 교리를 썼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제한해서 쓸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세상·나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성경의 풍성함과 그에 맞는 풍성한 반응을 통해서다. 성경은 자신을 해석하는 일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경건하게 하는 추론은 이 우위를 위협하지 않는다.

1. 성경에서 추론하기 = 순종하기
2. 하나님 앞에서 논리의 한계는 더 뚜렷하다
3. 모순이 보이면 한 걸음 물러서 미해결 인정
4. 그래도 논리 자체를 버리지는 않는다
5. 성경은 자기 해석에서도 최종 권위

> **이사야 55:8**
>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
>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로마서 11:33**
>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 추론의 한계
>
>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논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계시의 유기체

하나님이 성경·세상·나를 통해 주시는 계시가 한 몸처럼 서로 기대고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일반계시·특별계시

일반계시는 자연과 인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이고, 특별계시는 말씀(지금은 성경)으로 주시는 계시다.

명제·명제계시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진술이고, 명제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진술로도 자신을 알리신다는 뜻이다.

부수적 메시지(obiter dicta)

중심 주제를 말하다가 지나가며 한 말이다. 프레임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본다.

종주권 계약

고대 근동에서 큰 왕이 작은 왕과 맺은 조약이다. 큰 왕이 1인칭으로 문서를 써서 법으로 세웠다.

충족성

성경이 모든 진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규범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는 가르침이다.

비모순율

같은 것이 같은 때, 같은 의미에서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는 논리 법칙이다.

세 관점(규범·상황·실존)

모든 앎을 하나님의 법칙, 대상인 세상, 아는 주체인 나라는 세 방향에서 함께 보는 프레임의 방법이다.

비형식 논리

형식만 따지는 형식 논리와 달리, 일상 언어로 하는 실제 논증의 내용과 맥락까지 [illegible]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기준은 성경 자신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은 성경·세상·나를 통해 계시하시며, 셋은 서로 기댄다.
- 그래도 성경은 구속의 주제, 성령의 능력, 언약 문서의 지위 때문에 최종 판단권을 가진다.
- 추론은 순종의 일부라서 버릴 수 없지만, 논리도 중립적이지 않고 한계가 많아 성경과 겨룰 수 없다.
-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모든 능력(논리·상상력·감정·의지)을 쓰되, 모순 앞에서는 성경을 부정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4편 · 기적·전통·이성은 어디까지 증거인가 · 변증의 자리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